

서산시, 농어촌공사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위수탁 '협약'

송윤종 기자 | 승인 2024.08.07 16:40

청년에게 스마트팜 영농 기회 제공으로 자립 기반 마련



▲ 시청 상황실에서 7일 열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위수탁 협약식 모습

충남 서산시는 7일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와 2024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이완섭 서산시장, 김덕규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을 비롯한 김형래 서산시 4-H 연합회장 등 관내 농업인 단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에게 3년간 저렴하게 스마트팜 시설을 임대해, 농업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농어촌공사에 스마트팜의 실시설계부터 공사준공 후 인수·인계까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일괄 위탁한다.

시는 6월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확정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6년까지 임대형 스마트팜을 준공하고, 18세부터 40세까지의 청년 농업인에게 3년간 시설을 임대할 계획이다.

참석자 중 청년 농업인 김형래 서산시 4-H 연합회장은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는 청년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완섭 시장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서산시 농업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들의 농업 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이 스마트농업에 관심을 두고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5ha 규모로 부석면 가사리 일원에 조성되는 서산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선정으로 국비 140억원을 확보해 추진된다.

/서산=송윤종기자



송윤종 기자 ehyun01@naver.com